

1993년도 『조선문학』 동향

북한 문예이론과 비평의 경전이 된 『주체문학론』(김정일,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7.10.)이 출판된 이후 북한 문예계는 중요한 전환을 맞이한다. 북한에서는 『주체문학론』이 제기하는 주체사실주의 창작방법이 이전 시기와 다른 독창적인 문예론임을 천명하고 있다. 1993년도 『조선문학』의 좌담회, 논설과 평론에서는 『주체문학론』의 위상을 강조하고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평론도 『주체문학론』의 자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좌담회 「불멸의 대가를 안고」(1호)에서는 『주체문학론』의 목차인 ‘시대와 문예관’, ‘유산과 전통’, ‘세계관과 창작방법’,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문학’, ‘생활과 형상’, ‘문학형태와 창작실천’의 독창성과 심오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영화, 강능수, 김하명, 신구현, 현종호, 최길상 등으로 북한 문예계의 내로라하는 비평가들이다.

논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방연승, 2호)에서는 주체의 문예관이 사람중심의 인간학이라는 견지에서 독창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논설 「유산과 전통에 대한 주체적 이해」(신경균, 4호)에서는 민족문화유산계승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적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논설 「주체사실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창작방법, 최고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이다」(장형준, 5호)에서는 주체사실주의가 선행한 사회주의사실주의와 구분되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주체사실주의가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보고 그리려는 창작방법이라는 점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문예관의 주요내용이 사람중심, 인민 중심, 사회적정치적 생명체,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설명되면서 북한 문예가 사실주의보다 이념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논설 「당의 위대성 형상은 우리 문학의 영원한 형상원천」(리봉진, 6호)에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밝힌 당의 위대성 형상의 중요성을 송가문학과 연관하여 다루고 있다.

논설 「수령형상문학을 끊임없는 개화발전으로 이끄는 불멸의 사상리론」(리수립, 7호)에서는 수령형상 문학론의 독창성, 심오성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주체문학론』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면서 3위1체 원칙, 후계자 형상, 혁명적 수령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논설 「주체문학창작의 형상원리에 대한 백과전서적인 해명」(현종호, 8호)는 『주체문학론』의 ‘생활과 형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9호의 논설(오승련)에서도 『주체문학론』의 문학형태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10호의 논설(김용부)도 ‘당의 영도와 문학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외에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비평의 글들이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해당되는 작품들이 분석되고 있다. 민족의 운명문제로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지

도자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인 『푸른 하늘』(<불멸의 향도>)에 대한 평론(2호)이 있고, 『빛나는 아침』, 『조선의 봄』, 『50년 여름』(<불멸의 력사> 해방 후편)에 대해서는 수령형상 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잘 형상하고 있다고 평하고(4호) 있다.

수령형상에서 수령의 풍모를 형상한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에 따라》를 다룬 글도(김성우, 7호) 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명언 해설은 대부분 혁명적 동지애를 강조하고 있다. 동지애를 얻는 것은 조선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원천임을 밝히고 있으며(5호) 신념과 의리에 대한 내용(6호)을 해설하고 있다.

수령형상문학이 중심이 아닌 글들은 예년에 비해 적은 비중으로 실려 있다. 농촌 새 세대 청년이 등장하는 90년대 초반 작품에 대한 평론이 있다.(김혜월, 5호) 단평 「조국에 대한 심오한 형상」(3호)에서는 사회주의 조국의 우월성을 노래하고 있다. 그 우월성은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민의 감정으로 나타남을(시 「우리집」) 설명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형상 창조에 관한 글(김선려, 8호)에서는 노동계급이 지닌 혁명성,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충실성 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환희』, 『해빛은 넘쳐라』 등을 소개하면서 인테리화되어 가는 노동계급의 성격 창조에서 이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묘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역사소설 『망이』(제1부)를 다룬 글도 있다.(리상복, 9호) 박산운의 시집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한 평론(방연승, 11호)에서는 시인의 조국통일 의지를 칭송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1993년도 『조선문학』의 경향은 『주체문학론』의 위상 정립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령형상문학의 구체적 창작방법론이 작품에 적용되어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옥규